

“브랜드 있는 대표 미술관으로 거듭날 것”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 취임

한국화 전통 계승·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육성 “지역 미술 부흥은 지역 미술관의 첫번째 미션”

“한국화의 전통 계승과 혁신, 미디어 아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광주시립 미술관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겠습니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55)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17일 시립미술관장에 취임한 전 관장은 먼저 “기대만, 걱정 반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외지 출신에 전문직 경험이 오히려 지나친 전문가의 잣대로 업무를 수행·평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광주의 정서를 감안하고 광주만의 정체성을 잘 살려나갈 계획이다”고 운을 폈다.

그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역사만큼이나 시스템이 안정화 돼 있다”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관심과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미술관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소통’을 강조했다.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 각 분야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역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힘써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와도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다져 나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립미술관의 대표 콘텐츠로 ▲한국화 전통계승과 혁신 ▲미디어아트 의 쇼윈도우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꼽았다.

전통 한국화 계승과 혁신은 광주에서 꼭 해야 할 일이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시립미술관의 허브 역할을 강조하고, 어릴 때부터 문화적 취향을 익혀야 한다는 점에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에 정통한 현장 전문형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 관장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처음 미술관이 들어설 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화가 출신이 관장을 맡았다”며 “광주시립미술관이 이 지점에서 전문가가 관장이 필요한 것은 21세기 미술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미술관 활동을 위해 공간, 조직이 바뀌고 콘텐츠가 바뀌는 것이다. 그 첫 단추를

꿰고 돼 무한한 영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광주시립미술관 연간 관람객 수가 18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한다. 또 전업작가의 수를 보면 광주 시민 500명 중 1명 꼴인데 이는 놀라운 숫자다. 광주 시너지 효과의 출발은 광주 시민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시립미술관의 비전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그는 “미술관은 지역의 문화관광 기반 시설이 돼야 한다. 지역미술이 부흥하는 것은 지역미술관의 첫번째 미션이기도 하다”며 “다양한 관람객을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될 것이다. 더 전문화된 브랜드가 있는 미술관으로 나가는데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전 관장은 부산 출신으로 세종대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원 미술행정 및 큐레이터십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 세종문화회관 전시감독, 2015-2018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감독을 역임했다. 1996년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을 맡았으며, 2013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위한 상설전시 책임연구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연수 기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 정순애 부위원장, 이경호 의원, 이홍일 의원, 최영환 의원 등 5명은 11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융복합 전시관을 찾아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을 관람했다.



광주 국악인 한마당 대축제 (새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는 지난 10일 광주전통문화관 너털미당에서 ‘국악인의 날’ 선포식 및 ‘제1회 광주 국악인 한마당 대축제’를 펼쳤다.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교육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정선거지원단 4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정선거지원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문해의 달’ 성료

300여명 참석 ‘문해 골든벨’ 등 행사 다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광주 문해의 달’ 행사를 개최했다.

‘세상을 여는 배움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문해의 달’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해 문해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맹문제를 상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성인 문해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학습자들의 학습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광주지역 18개 성인 문해교육 기관 관계자 및 학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습자

들이 옛 교복을 입고 ‘제2회 도전! 우리 말 완전정복’ (문해 골든벨)을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한글실력을 뽐냈다.

문해 골든벨 최후의 1인으로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정경숙씨가 우승해 광주시 장상을 받았다.

행사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제2회 우수문해교사 선발대회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계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은 “광주 문해의 달 기념행사를 통해 성인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와 교사, 관계자들이 배움의 기쁨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원동력을 얻으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광주복지재단 정신건강교육 워크숍

광주복지재단은 11일 광주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신건강교육 워크숍 ‘MBTI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나의 삶과 일터 돌보기’를 실시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지표로, 이 검사를 통해 인간의 16가지 성격유형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격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검사 도구다.



남구의회 박희율·오영순 의원 특별수업

광주 남구의회는 11일 방림초등학교에서 박희율 의원과 오영순 의원이 1일 명예교사로 특별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각각 5학년 2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인 지방의회 활동 사항과 의원의 선출방법, 선거제도의 중요성 등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박희율 의원과 오영순 의원은 “우리 미

이날 교육은 용미주(광주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사의 진행으로 ▲MBTI 성격유형 검사 실시 ▲자신의 MBTI 성격유형 이해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법 등 강연·실습을 통한 직접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이보람씨(광산구 행복나루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나의 성격유형과 성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 “오늘 배운 결과물을 적용해 효과적인 직무기술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성수 기자

미기록 해조류 2종 발견

조선대 조태오 연구팀

조선대학교는 조태오(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교수가 국내에서 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미기록 해조류 2종을 발견, 환경생물학회지 9월호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교수가 새로 발견한 해조류는 ‘아시아숨말’과 ‘가지바다오디’다.

아시아숨말은 바닷가에서 3cm까지 실터래처럼 영겨 자라며 몸은 한 개의 세포 열로 구성되면서 작아 작을 가지기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신안 흥도와 전북 부안 변산반도, 경북 울진, 경남 고성서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지바다오디는 1cm까지 자라며



한 개의 세포 열로 구상돼 뾰족한 가지들을 형성한다. 여수와 강원 강릉 등에 생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지난 2014년과 올해 가지바다오디를, 2015년엔 아시아숨말을 각각 채집, DNA 분석과 형태 분석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증한 결과 미기록 종인 것으로 확인했다. 조 교수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해양갈조식물 기탁등록보존 기관을 운영하며 국내 서식하는 해양갈조식물 발굴에 힘써 왔다. /고광민 기자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상호협력 ‘첫 발’

광주문화재단-ACC 업무협약

광주문화재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2018 제2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과 아시아 문학인 교류의 장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과 ACC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는 11일 ACC에서 광주-아시아-세계 문화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페스티벌’과



‘아시아문학인 교류의 장’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의 첫발을 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CC는 페스티벌과 교류의 장 행사 전반을 관리하고, 광주문화재단은 초청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희율 의원과 오영순 의원은 “우리 미

- ▲김광휘씨(광주시 기획조정실장)
- ▲노경수씨(광주도시공사 사장)
- ▲김훈씨(/ 기획전략처장)
- ▲임창완씨(/ 경영관리처장)
- ▲김도형씨(/ 홍보고객팀장)

목포대 이윤정씨 ‘골드칼라 공학도상’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이윤정씨(23·4년)가 최근 라마다 플라자 제주호텔에서 진행된 한국공학교육학회 2018년도 학술회에서 ‘골드칼라 공학도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골드칼라 공학도상’은 블루칼라로 인식되는 공학계 역량을 인성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두루 갖춘 지식기반형 인재 ‘골드칼라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공학교육학회가 제정했다.

이윤정씨는 목포대 공학인증 정교수 지원을 통해 공학적 전문성 외에 다양한 능력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뜻깊은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큰 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동아리 ‘Curity’ 팀장은 /목포·강성수 기자



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창업DNA 우수자 장학선발대회 2위,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캠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창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냈다. 이씨는 “목포대에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공학계 전문성 외에 다양한 능력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뜻깊은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큰 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동아리 ‘Curity’ 팀장은 /목포·강성수 기자